

무차대회 약속 지킨 아름다운 만남

자승 스님, 20일 노들장애인아학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장애인 교육기관인 서울 노들장애인아학과 약속을 지켰다.

자승 스님은 10월 20일 노들장애인아학을 방문해 박경석 노들아학 대표와 환담을 나눴다. 이날 방문은 지난 9월 17일 조계사에서 열린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2014년 시민초청 무차대회'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무차대회 당시 총무원장 스님은 박경석 노들아학 대표에게 학

교 방문을 약속한 바 있다.

자승 스님은 “무차대회에서 노들아학 음악팀의 공연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당시 박경석 대표님께서 아학방문을 약속했는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노들아학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매월 조계사를 통해 쌀 17가마를 후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자비나눔 기금 500만원을 학교 운영기금으로 지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20일 노들장애인아학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진 제공= 조계종 총무원

진각종 내년도 예산 166억 400만원

22일 종의회서 확정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2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관에서 제391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으로 총 166억 400만원을 확정했다.

세부 예산안으로는 불리원 139억 4000만원, 교육원 7억 5000만원이다. 포교 및 문화사업은 예산이 소폭 증가했으며, 각종 행사 및 부서운영비가 감소했다. 교육

원 예산은 예년과 동일하다.

한편, 종의회는 법정 정사의 교육원 교무부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종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종의회 의원으로 원명 정사(대명심인당 주교) 정사를 선출했다.

이날 종의회는 12월 6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진각종 유지재단 이사 법정, 경당, 회성 정사를 유임키로 결의했으며 회당학원 이사로 유가심인당 주교 덕은 정사와 명륜심인당 주교 효명 정사를 복수추천했다. 노덕현 기자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태고종 20일 수계산림 회향

태고종 제39기 합동독도 수계산림 회향 법회가 10월 20일 태고총림 선암사 만재루서 해초 정종예하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거행했다.

이날 수계산림 법회에서 사미 31명 사미니 9명 등 총 40명이 태고종 새 스님으로 태어났다. 이날 전계아사리 도산 스님(총무원장), 교수아사리 지홍 스님(중앙종회의장 수석부의장), 갈마아사리에 설운

스님(정수원 원장)을 삼화상으로, 호법부원장 삼국 스님, 중앙포교원장 지현 스님, 고시위원회 위원장 동우 스님, 총무원 부원장 호명 스님, 광주전남총무원장 호산 스님 등을 7중사로 모신 가운데 열렸다.

정종 해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받은 수행자는 큰스님이 되겠다는 대 원력을 갖고 탐진치를 끊고, 생각 생각이 보리심을 내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출가자로서 일탈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했다. 김주일 기자

도난 문화재, 선의취득·공소시효 없애야

[해설] 도난 문화재 매매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국 20개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48점을 개인수장고 등에 은닉해온 사립박물관장 권모씨(73)와 이를 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정모씨(55) 등 1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48점의 존재는 피의자 권 씨가 지난 5월 마이아트옥션에 도난품인 문화재 경매를 의뢰하며 그 존재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관련 제도의 허점을 보여 준다.

낮은 시효때문에 처벌 회피

피의자 권 씨는 도난 불교문화재를 총 4억 4,800만원에 매입 후 박물관 내 수장고에 은닉했다가 채무문제로 일부를 지난 5월 경매에 내놓았다. 불화들은 피해 장소를 비롯해 출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화기(書記)가 오리거나, 덧칠하고, 심지어 조각조각 나누어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불교문화재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5월 29일 문화재청 단속반 및 서울시 광역수사대와 협력해 이를 발하냈다. 그렇다면 권 장관은 왜 경매에 도난 문화

재를 내놓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단 점이다. 이번에 회수된 불교문화재는 1988년부터 2014년 사이에 도난당한 것으로 장물 취득·알선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모두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같이 적발이 되더라도 법망을 피해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

문화재 은닉 시효 7년에 불과 시효 끝나면 시장 나와 매매 경매 경우 선의취득도 유효해 문화재 매매 허가제가 대안

장보는 광역수사대 팀장은 “문화재는 오래될 수록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보통 공소시효 이후에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처벌을 피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재 관련 범죄에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난품 매매 ‘모르쇠’ 면 해결 이와 함께 도난문화재를 모르고 살 경우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은 10월 22일 도난문화재 예방 및 회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문화재 도난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장 형성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난 문화재 선의취득 예외 조항과 공소시효 확대 및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의취득 조항이 유효한 점도 도난문화재의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 보호법 상 도난문화재의 일반적인 매매는 선의취득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장물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때문에 장물 소지자가 의도적으로 경매에 출품해 위장낙찰자를 내세워 장물을 세탁하기도 한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도난문화재는 지자체의 매매허가제를 도입해 도난품으로 확인될 경우 매매 무효 및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문화재 매매 시 년 1회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지 않더라도 확인방

법이 없는 등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일제시대 이후 도난당한 것으로 기록된 불교문화재는 총 796점으로 그동안 회수한 문화재는 181점에 불과하다. 강력한 도난문화재 근절 대책이 있지 않는 한 문화재 도난이 이어지는 것은 자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은 도난 백서를 새롭게 펴낼 계획이며 경찰은 도난 문화재를 자진 신고할 시 처벌을 감면해주는 ‘불법 문화재 자진신고제’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임시 총회 열자” VS “절대 못 연다”

전국비구니회 · 열린모임 23일 만남… 합의점 못 찾아

총회의원 적법 선출 주장에 총회 통한 논의로 맞서 ‘절전’ 비구니회 내용 장기화 전망

최근 내용을 겪는 전국비구니회와 열린비구니회의 임원진들이 만나 임시총회 소집을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됐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을 비롯해 열린비구니회 공동대표 임대 스님 등 9명이 10월 23일 전국비구니회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만났지만 결국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앞서 열린비구니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비구니회측에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의 사퇴와 임시총회 소집, 제 16대 중

앙총회의원 비구니대표 후보추천 무효 등을 전국비구니회에 요구해왔다. 이날 면담에는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스님, 부회장 무아스님,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 운영위 수석부위원장 혜전 스님, 운영위 부위원장 명준·묘주스님, 기획실장 지홍 스님이, 열린비구니모임에서는 공동대표 임대·정현스님과 재범스님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명우스님은 “운영위원장 선출과 총회의원 비구니대표 후보추천은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은 개최할 수 없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비구니모임측 공동대표 임대 스님은 “우리는 비구니회의 회원인 만큼 문제가 있으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으며, 총회를 통해 좀더 많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해서 해결점을 찾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2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이날 모

임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끝나 내용은 장기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을 심려하는 교수·강사 모임’은 10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열린비구니모임’의 주장에 동참했다.

비구니 교수, 강사 스님 34명은 “이미 제 10대 비구니회 집행부가 과연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인가에 대해 의식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특히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의 극심한 파행에 대해 격정의 목소리를 내곤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사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열린비구니회가 언론지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했으며, 열린비구니회측은 전국비구니회 사무국에 임시총회 소집 요서를 공식 접수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재가이사 김선근 교수 선임

20일 재단 이사회서 결정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영)는 10월 20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285회 이사회를 열고 김선근 명예교수(사진)를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김선근 신임이사는 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동국대 이사회는 2013년 12월 선임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동국대 이사회는 종관위가 추천한 이사 후보 선출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종관위는 재차 후보 재선출을 주문했으며, 동국대는 교육부에 문외해 이사선임 권한이 동국대에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10월 28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국대는 김희욱 동국대 총장이 2015년 2월 임기가 만료된다.

노덕현 기자

《열린비구니모임》 지지 성명서

현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1968년 발족된 우담바라회로부터 시작하여 1985년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개명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전국 비구니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비구니 스님들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지난 10월 13일 ‘(가칭)열린비구니모임’ 공동대표(혜운, 임대, 정현, 행법스님)가 140여 비구니 스님들의 동참 의지를 밝히며 제 16대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과 제 16대 중앙총회 비구니 의원 후보선출에 대한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열린비구니모임의 행보는 비구니 총회의원 선출에 불만을 품은 갑작스런 일이 아니다. 이번 총회의원 선출과정에서의 파행적 모습이 발화가 되었지만, 이미 그동안 제 10대 비구니회 집행부(회장 명우스님)가 과연 6천여 명의 비구니를 대표하는 비구니회인가에 대해 의식 있는 비구니 스님들은 의구심을 가져왔다. 특히 운영위원장(계환스님)의 극심한 파행에 대해 격정의 한목소리를 내곤 하였다.

과연 지금의 전국비구니회는 누구를 위한 비구니회인가!

참으로 우린 통탄하면서 지금이라도 전국비구니회가 바로 서도록 하겠다는 용기있는 스님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한편 ‘열린비구니 모임’은 출범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진정한 대승의 행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 교수와 강사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열린비구니모임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

〈둘째〉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속히 소집하라.

〈셋째〉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불기 2558(2014)년 10월 22일

〈전국비구니회의 파행적 운영을 심려하는 교수·강사 모임〉

본각 능인 대한 명선 명오 명오 문성 법건 벽공 서광 선정 성법 수경 여현 오인 원과 원영 은광 일연 일장 일중 자목 정도 정운 제마 지은 지현 철우 해주 행오 형운 혜원 희철 효탄